

# 지겹다 비... '雨울한' 타이거즈



2일 광주 챔피언스필드 외야에서 러닝 훈련을 하던 KIA 투수 한승혁(오른쪽)과 송은범이 비가 쏟아지자 덕아웃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어제 두산과 홈경기 우천취소...8월, 10경기 무산 들쭉날쭉 스케줄에 선수 경기력 영망 연패 이어져

빛고을이 아니라 비고을이다.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KIA와 두산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8월 비로 10경기를 쉬었던 KIA는 9월 시작도 비와 함께 맞았다.

반가웠던 비가 이제는 지겨운 비가 됐다. 전반기에 KIA는 비를 피해가면서 최다경기 팀으로 씬없이 질주를 했다. 휴식이 일정 없이 전개된 46연전 기간에도 비는 없었다. 전반기가 끝난 7월13일까지 우천으로 단 두 경기만을 쉬어갔다.

비의 덕을 본적이 있기는 있다. 6월21일과 22일 잠실에서 열렸던 두산과의 경기에서 KIA는 하늘의 조력을 받아 천금같은 2승을 챙겼다.

김병현이 선발로 나선 6월21일 4-2로 앞선 상황에서 5회를 넘기고 비가 쏟아지면서 행운의 원투승이 기록됐다. 다음날 경기에서는 임준섭

이 강우 콜드로 인해 올 시즌 첫 완봉승의 주인공이 됐다. 개인 첫 완봉승이기도 했다. 특히 1-0의 박빙의 승부에서 5회 이후 폭우가 내리면서 KIA는 이를 연속 함박 웃음을 지었다.

후반기에도 KIA는 하늘만 보고 있다.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다.

태풍의 여파로 8월2·3일 삼성과의 홈 경기를 쉬던 KIA는 우천으로 미뤄진 월요일 경기도 소화하지 못하면서 예상되지 않은 8월을 맞았다.

잠실로 올라가 5일 두산과 하루 경기를 했지만 다시 우천취소. 8월14·15일 휴식기를 보내고 돌아온 뒤 상황은 더 심각했다. 16일 넥센과의 홈경기 이후 월요일 경기 포함 광주에서 예정됐던 넥센·삼성과의 4경기가 모두 우천취소됐다. 설상가상 LG와의 경기를 위해 원정길에 오른 21일, 광주에는 비가 그쳤지만 잠실에서 비가 쏟아지면

서 5경기 연속 우천취소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8월24일 한화와의 홈경기과 8월26일 넥센 원정까지 8월에만 10경기가 비에 무산됐다. 휴식이 일정까지 겹치면서 KIA는 이중고를 겪었다. 들쭉날쭉한 경기 스케줄에 선수들의 경기력도 들쭉날쭉해졌다. 뒤늦게 위력을 발휘하던 선발진의 기세도 비에 한층 꺾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9월 시작도 비. 4·5일 휴식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답답지 않은 비가 됐다.

비로 마운드에 변동이 있다. 2일 KIA 토마스와 두산 노경은의 대결이 예정됐지만 우천으로 경기가 밀리면서 3일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서는 양현종과 유희관의 좌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KIA가 최근 기록한 3승은 양현종 홀로 책임졌다. KIA는 양현종이 등판했던 8월12·23·29일 승리를 거뒀다. 그 사이에는 6번의 우천취소와 6패만 있었다.

KIA가 3일 '밀승맨' 양현종을 앞세워 비와 슬럼프에서 탈출할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구름 온다” 김주찬 우천취소 족집게 예보

### 덕아웃 특·특·특

▲“무서워요.”

9월1일자로 엔트리확정되면서 5명의 선수가 1군에 올라왔다. 투수 임준혁, 포수 백용환, 외야수 김원섭과 박준태 그리고 내야수 박찬호가 새로 선수단에 합류했다.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는 막내 박찬호다. 박찬호는 올 시즌 장충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입단한 고졸 신인이다. 1995년생 막내의 첫 1군 합류 소감은 “무서워요”였다. 경쟁한 선배들과 낮은 분위기에 긴장이 많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훈련과 심부름을 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니던 박찬호는 덕아웃에서는 목이 타는지 물만 들어왔다. 김상훈은 18살 차이의 후배를 보고 “내가 오래 야구를 하긴 했나 봐. 아들뻘이야”라면서 웃기도 했다. 막내 박찬호와 팀의 최고참 최영필과는 21살 차이다.

▲“무등산에 잔뜩 몰려있네.”

많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던 2일, KIA 선수단 사이에는 역시 날씨가 화제였다. 훈련이 시작될 때 만해도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선수들은 예보와 위성 영상을 살펴보면서 경기 진행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훈련이 한창이던 시간 비가 조금씩 내리기는 했지만 큰 영향은 없던 상황.

하지만 곧 많은 비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보를 한 선수가 있었다.

덕아웃에서 훈련을 기다리던 김주찬이 무등산을 가리키며 “무등산에 구름이 잔뜩 몰려있다”며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그리고 이내 경기장에 폭우가 내리면서 훈련이 중단됐고, 결국 우천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 생활 2년을 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은 김주찬의 족집게 예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빈스 롬바르디를 품어라”

〈슈퍼볼 트로피〉

### NFL 2014시즌 5일 키포트

미국프로풋볼(NFL) 2014시즌이 오는 5일 오전 9시30분(이하 한국시각)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센츨리링크필드에서 열리는 시애틀 세하وک스와 그린베이 패커스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총 32개 팀이 17주 동안 16경기씩 정규리그를 치른 후 플레이오프로 챔피언을 가린다. ‘미국인의 축제일’로 불리는 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은 내년 2월2일 피닉스에서 열린다.

NFL 사무국이 NFL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인터내셔널 시리즈는 오는 29일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마이애미 돌핀스와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맞대결로 치러진다. 경기 전에는 영국 록그룹 데프 레퍼드의 공연이 펼쳐진다.

지난해 우승팀 시애틀과 그린베이의 개막전 빅매치도 흥미롭지만 결국 팬들의 관심은 과연 올 시즌은 어느 팀이 우승 트로피인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품에 안을 것이냐다. 사실 변수가 많기로 유명한 NFL 시즌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거친 몸싸움이 많은 경기의 특성상 부상 등의 돌발 변수가 무수히 도사리고 있어서다.

그래도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미국 CBS 스포츠는 7명의 NFL 전문가들에게 슈퍼볼 챔피언 전망을 물었다. 그 결과 7명 중 3명이 덴버 브롱코스의 우승을 전망했다.

덴버가 슈퍼볼 우승에 입맞출 것이라고 내다본 전문가들은 ‘세기의 쿼터백’ 페이튼 매닝의 건재 이외에도 수비력이 지난해보다 한층 향상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T.J.워드, 아퀴브 탈립, 디마커스 웨어 등이 새롭게 가세하고 레프트 태클 라인인 클레디가 부상에서 복귀한 덴버의 수비진은 리그 최강의 공격진과 조화를 이루며 슈퍼볼 우승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쿼터백 톰 브래디가 이끄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즈, 쿼터백 애런 로저스가 진두지휘하는 그린베이, 짐 하보 감독의 전략이 돋보이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49ers) 등이 각각 1표씩 받았다. /연합뉴스



마라도나 “나이는 못속여”

마라도나(왼쪽)가 1일 로마 올림피스타디움에서 열린 ‘세계평화를 위한 범종교 축구경기’에 참가, 달리고 있다. 이 대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안한 것으로, 수익금은 가난한 어린이 지원 사업에 기부된다. /연합뉴스